

국내 아동보육 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이 주 연(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전임강사)

I. 서 론

최근 우리사회에서 ‘보육’이라는 용어를 매우 생소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아동학을 공부하거나 혹은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보육’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용어가 되었다. 보육은 보호(care)와 교육(education)의 합성어로(김익균 외, 2002),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아동보육의 개념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보호와 양육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동보육서비스는 아동발달과 가족복지 향상을 위한 포괄적 양육지원이라는 보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의 의미를 갖는다(조복희 외, 2007). 그러나 불과 십여 년 전만하더라도 ‘보육’은 그리 친숙한 용어가 아니었으며, 그 개념도 다소 다른 의미로 더 자주 사용되었다. 즉, 과거 아동보육서비스의 개념은 부모에게 버려지거나 부모로부터 이탈된 아동들을 보호하는 서비스의 개념으로, 선별적 사회복지의 특징을 가졌다. 한편 과거에는 현재의 보육 용어와 유사한 의미로 ‘탁아’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 단순히 아동을 맡아준다는 소극적 보호의 의미를 가진다(공인숙, 한미현, 김영주, 2005).

이처럼 과거 아동보육에 대한 관심은 맞벌이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부모들에게 국한된 것으로 여겨졌으며, 그에 따라 아동보육에 대한 연구도 그리 활성화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의 아동보육에 대한 관심은 사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국가차원에서의 사회적 관심사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아동보육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핵가족화, 여성의 취업증가, 가족구조의 다양화 현상 및 자녀수 감소와 같은 현대사회의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조복희 외, 2007). 무엇보다도 현대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취업모의 비율은 일반인들에게까지 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인 가장 직접적인 이유 중 하나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두드러지고 취업모의 수가 증가하기 이전 사회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은 가정, 특히 어머니에게 있었다. 따라서 그 시대에 자녀에 대한 보호와 교육은 어머니에 의한 “양육”으로 이해되어졌다. 그러나 취업모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전적으로 돌볼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부모에 의한 양육이 아닌 타인양육 혹은 보육시설 탁아와 같은 개념이 나타나게 되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여성취업률을 살펴보면, 1960년대에 15세 이상 여성인구 중 취업여성의 비율이 약 37%였던 데에 비해, 1990년대에는 40%대로 증가하였고 2005년에 50%의 비율을 보이는 등 꾸준한 증가현상을 나타내고 있다(통계청, 2008). 여성의 취업과 관련된 가치관도 과거에 비해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조사(2002)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여성이(89.8%) 직업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중 결혼 전(4.4%)이나 첫 자녀 출산 전(5.5%)까지 취업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소수에 불과하고, 가정 일에 관계없이 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40.2%에 이른다. 이는 많은 여성이 가정에만 전념하거나(17%) 결혼 전까지만 취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7.8%)는 태도를 갖고 있었고, 취업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6.7%)는 태도는 소수였던 십여년 전의 자료(통계청, 1991)와 비교할 때 매우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조복희 외, 2007에서 재인용). 취업모의 증가와 더불어, 현대사회에서의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족기능의 약화는 보육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원인이다. 가족 내 성인구성원의 수적인 감소는 가족지지의 약화라는 기능적 변화를 야기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로 자녀양육의 기능이 과거에는 확대가족 내의 여러 성인들에 의해 공동으로 이루어졌던 반면, 현대사회에서는 핵가족화로 인해 부부 둘만의 책임이 되어 그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족형태가 출현하였는데, 한부모가족, 여성가구주 가족, 그리고 주말가족 등의 증가는 가족의 의미와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물론 가족의 기능에도 변화를 야기하였다. 즉,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기능은 생산기능보다는 소비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으며, 보호와 부양의 기능보다는 정서적 유대의 기능이 더 강조되고 있다(Cowan & Cowan, 2003). 과거 전통사회의 가족 내에서 행해지던 가족의 역할 중 상당부분이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사회로 이전됨에 따라 가족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었고, 자녀의 양육 역시 그러한 부분 중 하나가 되었다(유영주, 2005).

앞서 살펴본 보육에 대한 관심증가의 원인들은 우리 사회뿐 아니라 현대 산업화를 경험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슷하게 이해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 사회에서 최근들에 아동보육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것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즉, 현대사회의 변화로 인해 보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고, 여기에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됨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실제적인 노력을 실행하게 되었다. 보육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표현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보육관련 정책이며, 따라서 보육정책에서의 변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보육에 대한 관심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을 살펴보면, 초기 아동보육정책은 1961년 아동복지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빈민아동이나 전쟁고아와 같은 요보호 아동을 위한 구제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졌었다. 그러나 1961년 아동복지법이 제정되고 19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여성노동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1970년대의 보육사업은 전반적인 아동복지증진을 정책의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의 제정과 함께 교육적인 부분이 강조되었으나 보호와 교육의 어느 한쪽에만 치우친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와 함께 1991년 보호와 교육의 두 가지 성격을 통합·강조하는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보육’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이다(여성가족부, 2005). 비록 1991년에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을 자극하였으나,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에서의 한계점을 드러냈다. 이에, 정부는 2001년에 ‘보육사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2001, 12)’을 발표하여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과 지원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제안하였으며, 또한 2002년 보육의 공공성 확립, 보육대상 유형의 다양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주요 골자로 한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토대로 2004년 기존의 영유아보육법을 전면적으로 개정, 2005년부터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아동보육에 대한

활발한 정책적 수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의 보육사업은 1990년 이후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2000년 이후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하겠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보육시설과 보육인구는 1990년대까지 그 규모면에서 그리 큰 비율을 차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적인 요구에 의해 영유아에 대한 보육이 국가적인 관심을 받게 되고 2005년 영유아보육법이 전면 개정 및 실행됨에 따라 보육시설과 보육인구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1990년의 경우 1,919개의 보육시설에서 약 48,000명의 아동이 보육되었던 데에 비해, 2007년 6월말 현재 29,823개 보육시설에서 1,303,846명의 아동이 보육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불과 20년도 안되어 보육시설은 15배, 보육아동은 약 30배의 엄청난 증가를 보인 셈이다. 이러한 증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아동보육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관심과 노력에 따른 결과라 하겠다.

보육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학문적인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과거 ‘보육’ 용어가 친숙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최근 들어 아동보육에 대한 논문이 활발하게 발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보육지원학회(2005년 창립),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2002년 창립),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1997년 창립) 등 다수의 보육관련 학회들이 설립되어 관련 학회지가 발간되는 것들을 통해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아동보육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얼마만큼 증가하였는지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아동보육에 대한 연구들의 경향이 어떠한지, 아동보육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어떤 세부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주로 연구하였는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아동보육 분야의 논문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출판된 아동보육 논문이 양적, 질적으로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에 대한 분석은 불과 몇 년 사이 급격한 증가를 보인 보육에 대한 관심도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육분야의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제언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국내 아동보육 관련 논문의 연도별 분포는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국내 아동보육 관련 논문의 연구주제는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

[2-1] 분석주제별 경향은 어떠한가?

[2-2] 보육유형별 경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국내 아동보육관련 논문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1960년 이후 출판된 총 1,274편의 보육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보육논문의 수집은 국내학회지 웹DB 중 한국학술정보(KISS)와 누리미디어 학술데이터베이스(DBpia)의 두 자료검색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한국학술정보는

440여 기관의 학회지, 60여 대학 간행물의 원문을 제공하며, 누리미디어 학술데이터베이스는 285여 개 학회, 협회 및 출판사에서 발행되는 600여종의 디지털 간행물의 원문을 제공하는 웹DB이다. 두 웹DB에 등록되어 있는 논문 중 ‘보육’이라는 주제어 검색(제목, 초록, 주제어 포함)을 통해 1,274편의 논문목록을 다운받을 수 있었다. 그 중 중복논문 혹은 본 연구의 주제와 관계없는 논문들을 삭제한 후, 총 907편을 최종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분석기준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기준은 아동보육에 대한 서적(공인숙 외, 2005; 김경희 외, 2007; 김익균 외, 2002; 윤애희 외, 2005; 조복희 외, 2007; 조혜경 외 2006)의 내용과 연구동향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들(이대균, 백경순, 2007a, 2007b; 이대균, 백경순, 김현수, 2006; 이문옥, 이지영, 이방식, 2006; 조희숙, 1998)의 분석틀을 참고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1) 연도

논문출판 연도별 분석은 보육관련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한 1970년대를 시작으로 2008년(4월 현재)까지 각 연도별로 나누어 양적분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대해 연도별로 그 양적 증감의 경향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영유아보육법이 제정·시행된 1991년과 현행 영유아보육법이 전면 개정·시행된 2005년을 기준으로 다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아동보육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학문적 관심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주제

분석주제는 연구주제별 분석과 주제의 세부영역별 분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주제는 유아교육백서(2003)의 8개 준거영역(철학역사, 발달심리, 교육과정 프로그램, 교육정책, 교사교육, 부모교육과 자녀양육, 복지탁아, 기타)을 참조하였으며, ‘보육학개론’의 제목으로 2005년 이후에 출판된 교재들(공인숙 외, 2005; 김경희 외, 2007; 김익균 외, 2002; 윤애희 외, 2005; 조복희 외, 2007; 조혜경 외 2006)의 목차를 기준으로 공통된 내용을 분석주제로 선정하였다. 주제영역은 보육개념 및 의미, 외국의 보육, 보육현황, 보육정책, 보육프로그램, 영양·건강·안전, 보육종사자, 보육시설환경, 보육시설운영관리, 보육평가, 기타 등 총 11개 영역이다. 이러한 주제는 다시 세부영역별로 구분하여 총 22가지로 분석하였다.

3) 보육유형

보육유형별 분석은 연구주제가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은 보육유형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수행하였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보육시설 유형을 다양한 기준으로 구분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영주체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로 구분하며, 보육대상에 따라 영아보육, 유아보육, 장애아보육, 방과후 보육으로 구분한다. 또한 보육시간에 따라 종일제 보육, 반일제 보육, 시간제 보육, 24시간 보육, 시간연장형 보육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보육유형 중 본 연구에서는 특수보육 유형으로 분류

되는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방과후 보육, 그리고 야간 및 24시간보육에 대한 연구논문의 분포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또한 운영주체에 따라 국공립보육, 가정보육, 직장보육, 부모협동보육시설에 대한 연구논문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보육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는 보육연구의 주된 관심이 어떤 보육유형에 집중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3. 자료선정 및 분석절차

국내 아동보육 관련논문의 수집은 학회지 웹DB에서 주제어 검색을 통해 이루어졌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논문의 제목, 초록, 주제어에 ‘보육’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논문을 검색한 결과 1,274편의 연구목록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중, 중복논문 과 ‘창업보육’ 혹은 ‘보육원’과 같이 본 연구의 주제와 관계없는 논문들을 삭제하였다. 또한 학술대회 토론논문이나 포스터 발표 요약논문과 같이 출판논문과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 논문들을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하고는 있지만 보육과 관계가 있다기 보다는 대상선정 시 편의성을 위해 보육시설 아동을 표집하여 연구한 논문의 경우도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 907편을 최종분석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분석주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보육학과 관련된 내용을 기준으로 11가지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준거로 연구자 및 아동전공 박사과정생 1인이 1차 분류작업을 수행하였다. 1차 분류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22가지의 세부적인 영역별 분석기준을 설정하였고, 22가지 분석기준을 가지고 다시 연구자와 아동전공 박사과정생 2인이 2차 분류작업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1> 주제 및 세부영역별 분석기준

대주제	세부영역	내 용
보육개념		보육의 개념 및 일반적 가치, 보육의 의미
외국보육		국내보육과의 비교분석 연구는 제외
보육현황	실 태	보육서비스의 실태에 대한 양적 분석논문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논문
	요구도	보육서비스에 대한 관련자의 요구도 조사논문
	인 식	보육에 대한 일반적 인식 ex) 일반대학생의 보육서비스 인식
보육정책		정책 및 제도의 비교, 분석, 개발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구체적인 개별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 검증
	적용 및 분석	구체적인 개별 프로그램의 내용 분석
	인 식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
영양, 건강, 안전		영양, 건강, 안전에 대한 내용
보육종사자	자 격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
	직 무	보육시설종사자의 직무 관련 내용
	교 육	교사교육
	예비교사	교사양성교육 및 예비교사 관련 연구
기 타		교사의 장학관련, 자원봉사자 등
보육시설환경		실내외 환경구성
시설운영관리		보육시설 재정 및 인사관리 등
보육평가	평가도구	평가도구 개발관련 연구
	아동효과	보육서비스가 아동에게 미치는 효과
	부모효과	보육서비스가 부모 및 가족에게 미치는 효과
	전반적 질	보육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만족도
기 타		보육아동의 시설적용, 보육정보의 활용 등

분석주제별 실제 분류작업은 논문의 제목, 주요용어를 1차 기준으로 하여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기준으로 분류가 모호할 때에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문제를 참고하였다. 또한 연구의 내용이 분류주제를 2가지 이상 포함하는 경우에는 연구의 초점을 어디에 두었는지에 근거하여 분류하였다. 2차 분류작업은 3인의 분류자가 개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따라서 2차 분류작업 후 분류자들 간에 의견 차이가 발생한 106편(11.7%)의 논문은 3인이 함께 논의하여 결정하는 3차 분류과정을 거쳤다. 또한 3차 과정에서 분류에 어려움이 있었던 논문 8편은 어린이집 시설장 1인과 아동학 전공교수 1인에게 자문을 구하여 최종적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보육시설 유형별 분류는 연구의 초점을 어떤 보육유형에 두었는지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이 때, 특정 보육시설을 강조하기 보다는 표집과정에서 여러 보육시설유형을 단순 표집, 비교분석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또한 대상별 보육시설유형과 운영주체별 보육시설유형, 그리고 시간별 보육시설유형은 각각 독립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중복분류가 가능하게 하였다. 보육시설 유형별 분류결과는 3인의 분류자들 간에 완전한 일치를 보였다. 분석한 자료는 MS Excel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계산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아동보육 관련 논문의 연도별 분포

본 연구에서 수집한 아동보육 관련 논문 907편을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1977년을 시작으로 1990년 이후부터 2007년까지 논문의 양적증가가 현저하게 나타났다(<그림 1> 참조). 1990년 이전까지 거의 발표되지 않았던 아동보육 논문이 1991년 이후로 증가한 것은 아마도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과 함께 ‘보육’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1970년대 단 2편(1977, 1978 각 1편씩), 1980년대 단 4편(1982, 1986, 1987, 1988 각 1편씩)이었던 보육관련 논문은 1990년대에 들어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완만한 증가를 보이다가 1995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고, 1990년대 후반에는 1년에 40-50편 정도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특히 2000년에 6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전후년도인 1999년 39편, 2001년 46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마도 박혜원(2000), 박정혜(2000)의 연구와 같이 21세기로의 전환기에 미래지향적 보육을 위한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수행이 증가한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2000년대의 보육관련 논문 발표 수는 2002년 51편, 2003년 82편, 2004년 96편, 2005년 111편, 2006년 129편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 특히 2000년대 중반에 보육관련 논문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영유아보육법의 전면 개정 및 시행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즉,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2004년에 발표되고 200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정책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나 새로운 정책을 분석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같은 시기에 매년 100편 내외의 보육논문이 발표되는 등 보육관련 논문 편수의 급격한 증가 경향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 한편, 2007년에 발표된 논문 수가 93편으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것은,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보육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오른 결과로 보여진다.

2. 아동보육 관련 논문의 주제별 분포

아동보육 관련 논문들을 11가지의 보육주제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총 907편의 논문 중 보육정책과 관련된 논문이 204편으로 22.5%를 차지하였고, 보육종사자 관련 논문이 159편 (17.5%), 보육현황 논문이 116편(12.8%), 보육평가 논문이 105편(11.6%), 보육프로그램 논문이 96편 (10.6%)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밖에 외국보육 논문(70편, 7.7%), 영양·건강·안전 논문(54편, 5.9%), 보육시설 및 환경 논문(46편, 5.1%), 보육시설 운영관리 논문(27편, 3.0%) 등은 10% 미만의 분포를 보였으며, 보육개념 논문(11편, 1.2%)은 1%대의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내 아동보육 관련 연구들이 보육현황 및 정책 연구에 치중하여 왔음을 나타내며, 이는 한편으로 우리 사회의 보육에 대한 관심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제적인 정책 및 제도의 개발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구체적인 보육서비스의 측면에서 보육의 질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 요인인 보육시설 종사자 및 보육 프로그램 등에 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고, 이와 더불어 보육평가 연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는 사실은, 보육연구의 방향이 보육의 질적 향상에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반면, 보육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인 보육시설환경이나 영양·건강·안전에 대한 연구 빈도가 상대적으로 극히 미비하다는 것은 보육 연구가 연구주제 면에서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2>보육관련 논문의 주제별 분석

	보육개념	외국보육	보육현황	보육정책	프로그램	영양 건강안전	보육 종사자	시설환경	운영관리	보육평가	기 타	합 계
1977		1 (100)										1
1978		1 (100)										1
1982		1 (100)										1
1986		1 (100)										1
1987			1 (100)									1
1988			1 (100)									1
1991				1 (100)								1
1992			1 (20.0)	1 (20.0)				1 (20.0)		2 (40.0)		5
1993		2 (33.3)	1 (16.7)					1 (16.7)	1 (16.7)	1 (16.7)		6
1994			4 (40.0)	2 (20.0)	1 (10.0)		1 (10.0)	1 (10.0)	1 (10.0)			10
1995		2 (6.9)	3 (10.3)	7 (24.1)		2 (6.9)	5 (17.2)	2 (6.9)	4 (13.8)	4 (13.8)		29

1996	1 (2.3)	2 (4.5)	10 (22.7)	12 (27.3)	6 (13.6)	2 (4.5)	5 (11.4)	1 (2.3)	2 (4.5)	2 (4.5)	1 (2.3)	44
1997		5 (11.6)	4 (9.3)	6 (14.0)	10 (23.3)		2 (4.7)	5 (11.6)	1 (2.3)	8 (18.6)	2 (4.7)	43
1998		3 (6.1)	3 (6.1)	11 (22.4)	6 (12.2)	10 (20.4)	1 (2.0)	5 (10.2)	3 (6.1)	6 (12.2)	1 (2.0)	49
1999		2 (5.1)	10 (25.6)	5 (12.8)	4 (10.3)		7 (17.9)	2 (5.1)		9 (23.1)		39
2000		2 (3.3)	12 (19.7)	11 (18.0)	5 (8.2)	5 (8.2)	7 (11.5)	8 (13.1)	2 (3.3)	8 (13.1)	1 (1.6)	61
2001		3 (6.5)	7 (15.2)	7 (15.2)	6 (13.0)	3 (6.5)	7 (15.2)	5 (10.9)	1 (2.2)	7 (15.2)		46
2002	1 (2.0)	4 (7.8)	6 (11.8)	16 (31.4)	6 (11.8)	3 (5.9)	9 (17.6)	2 (3.9)		4 (7.8)		51
2003	2 (2.4)	6 (7.3)	11 (13.4)	21 (25.6)	12 (14.6)	2 (2.4)	17 (20.7)	2 (2.4)	1 (1.2)	6 (7.3)	2 (2.4)	82
2004	2 (2.1)	7 (7.3)	8 (8.3)	23 (24.0)	10 (10.4)	3 (3.1)	23 (24.0)	4 (4.2)	2 (2.1)	12 (12.5)	2 (2.1)	96
2005	2 (1.8)	6 (5.4)	20 (18.0)	27 (24.3)	10 (9.0)	10 (9.0)	20 (18.0)	1 (0.9)	3 (2.7)	11 (9.9)	1 (0.9)	111
2006	3 (2.3)	14 (10.9)	6 (4.7)	36 (27.9)	13 (10.1)	7 (5.4)	25 (19.4)	2 (1.6)	2 (1.6)	15 (11.6)	6 (4.7)	129
2007		8 (8.6)	8 (8.6)	15 (16.1)	7 (7.5)	7 (7.5)	28 (30.1)	4 (4.3)	4 (4.3)	9 (9.7)	3 (3.2)	93
2008				3 (50.0)			2 (33.3)			1 (16.7)		6
합 계	11 (1.2)	70 (7.7)	116 (12.8)	204 (22.5)	96 (10.6)	54 (5.9)	159 (17.5)	46 (5.1)	27 (3.0)	105 (11.6)	19 (2.1)	907

<표 3>은 국내 아동보육 관련 논문을 주제별 세부영역에 따라 다시 분류한 결과이다. 보육현황에 관한 연구의 경우, 총 116편 중 약 69%(80편)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논문이 보육서비스 실태에 관한 논문이었다. 보육관련 당사자인 부모, 보육교사, 보육시설장 등의 보육서비스 요구에 관한 조사는 약 25%(30편)를 차지하였고, 보육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과 같은 연구는 6편으로 약 5%를 차지하였다.

보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총 96편의 논문 중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연구가 48편으로 50%를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보육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노력이 연구를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한 연구가 30편(31.3%)이었으며, 개별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 및 요구도를 조사한 프로그램인식 연구가 18편(18.7%)에 해당하였다. 앞서 살펴본 보육현황 중 요구도에 관한 연구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도를 조사한 논문을 포함한 반면, 보육프로그램 인식에 관한 연구는 개별프로그램(예: 장애아통합 프로그램, 예절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에 대한 교사 및 부모의 중요성 인식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였다.

보육종사자에 관한 연구는 총 159편이었고, 이 중 보육교사의 직무에 관한 연구가 73편(45.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직무관련 연구의 경우, 직무인식, 직무환경, 직무스트레스, 실제

적인 직무수행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 이 밖에 예비교사에 관한 연구 혹은 예비교사 양성에 관한 연구가 33편(20.8%)이었고, 보육교사의 자질에 관한 연구는 21편(13.2%)이었다. 기타(17편, 10.7%) 연구의 경우, 보육시설 자원봉사자(7편) 혹은 보육시설장 및 교사의 장학관련 연구(3편)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보육평가 연구의 경우, 총 105편의 논문 중, 보육서비스의 전반적인 질 및 만족도를 연구한 논문이 40편으로 약 38%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아동에게 미치는 보육서비스의 효과에 대한 논문이 33편(20.8%)이었다. 평가도구에 관한 연구는 17편(16.2%)이었으며, 부모 및 가족에게 미치는 보육서비스의 효과에 대한 논문은 15편(14.3%)으로 분석되었다. 보육서비스의 효과를 포괄적으로 접근한 보육만족도나 전반적인 질에 관한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혜자 중심의 보육사업을 실행하고자 하는 보육연구의 경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육평가도구에 대한 연구 역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평가도구에 관한 연구는 주로 보육평가인증제의 개발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의 현실반영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현행 보육서비스가 보육수혜자들(아동과 부모 및 가족구성원)의 실제적인 발달과 지원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는 총 907편의 논문 중 48편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표 3> 보육관련 논문 주제의 세부 영역별 분석

대주제	세부영역	빈도(%)	합계 빈도(%)
보육현황	실 태	80(68.9)	116(100.0)
	요구도	30(25.9)	
	인 식	6(5.2)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48(50.0)	96(100.0)
	적용 및 분석	30(31.3)	
	인 식	18(18.7)	
보육종사자	자 격	21(13.2)	159(100.0)
	직 무	73(45.9)	
	교 육	14(8.8)	
	예비교사	34(21.4)	
	기 타	17(10.7)	
보육평가	평가도구	17(16.2)	105(100.0)
	아동효과	33(31.4)	
	부모효과	15(14.3)	
	전반적 질	40(38.1)	

3. 아동보육 관련 논문의 보육유형별 분포

아동보육 관련 논문의 연구대상을 보육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은 크게 특수보육 유형과 보육시설 유형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먼저, 특수보육 유형으로 구분되는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방과후보육, 야간 및 24시간보육에 대해 다루고 있는 논문이 전체 분석대상 논문 907편 중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았다.

<표 4> 보육관련 논문 연구대상의 보육유형별 분석

	특수보육				시설유형		
	영아보육	장애아 보육	방과후 보육	야간 및 24시간	국공립	직 장	가 정
1991							
1992							1
1993						1	1
1994		2			1		
1995		1			1		
1996		2	2	1	1	1	
1997	5	1	2				
1998					1		
1999	1	4	5			1	2
2000	6	2		1		1	5
2001	1	2		1	2	1	1
2002	3	2		1		1	2
2003	3	6	3	2		2	
2004	7	2	2	1		2	1
2005	10	4	3			3	1
2006	9	12	2	2	1	3	1
2007	4	11	1		1	2	4
2008							
합 계	49	51	20	9	8	18	19

본 연구에서 영아보육은 영아전담 보육시설에 대한 논문(배소정, 2004)은 물론 연구대상이 영아로 한정되어 있는 보육관련 논문(신지연, 최석란, 2005), 일반 보육시설에서 실시되는 영아보육 서비스에 대한 연구(권혜진, 이순형, 2001; 박정혜, 2000) 등을 모두 포함하였고 그 결과, 907편의 논문 중 49편을 차지하여 5.4%의 분포를 보였다. 전체 논문에 대한 비율면에서 매우 낮은 분포를 보이고는 있으나 특수보육 유형 중에서는 장애아보육과 함께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았을 때, 영아보육에 대한 연구는 2004년-2006년에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장애아보육은 1994년부터 꾸준히 학문적 관심이 있어왔고, 지난 30년 동안 영아보육과 비슷한 수준인 51편(5.6%)이 발표되었다. 장애아보육은 통합보육 및 장애아를 위한 보육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며, 넓은 의미에서 ADHD 증후 아동의 선별과 관련된 논문(조윤경, 2007)도 포함하였다. 야간 및 24시간보육에 대한 논문은 시간연장보육 논문 1편(김혜경, 류왕효, 2006)을 포함하여 총 9편(1.0%)이 발표되었다. 야간 및 24시간보육 논문은 다른 보육유형 논문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근래(2000년 이후)에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며, 양적인 면에서도 극소수의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방과후보육은 907편의 논문 중 20편(2.2%)이었다. 이러한 비율은 아동보육을 대상아동의 발달연령에 따라 크게 영유아보육과 방과후보육으로 구분할 때, 영유아보육에 비해 방과후보육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매우 미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보육시설의 유형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에 관한 논문의 편수를 분석하였다. 이 때, 하나의 논문에 여러 유형을 포함하는 논문은 제외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이 해당 보육시설 및 보육유형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만을 포함하였다. 그 결과, 국공립보육시설에 관한 논문은 907개 논문 중 8편(0.9%), 직장보육시설 논문은 18편(2.0%), 가정보육시설 논문은 19편(2.1%)이었으며, 부모협동보육시설에 대한 논문은 없었다. 직장보육시설 논

문과 가정보육시설 논문은 발표된 총 편수는 거의 유사하였지만, 발표된 시기에 있어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즉, 직장보육시설 논문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꾸준히 논문이 발표되었던 반면, 가정보육시설 논문은 오히려 1992년부터 시작하여 2002년 이전에 19편 중 12편의 논문이 발표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사보육 중심에서 공보육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 보육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1970년대부터 시작하여 2008년 4월 현재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아동보육 관련논문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총 907편의 아동보육 관련 논문을 연도별, 주제별, 연구대상의 보육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주제별 분류기준은 보육학개론 서적의 목차를 준거로 하였으며, 보육시설 유형별 기준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분류를 사용하였다. 총 3차에 걸쳐 수행한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아동보육 논문의 연도별 분석결과에 의하면, 논문에서 처음 ‘보육’ 용어가 등장한 것은 1970년대에 발표된 두 개의 논문(도흥렬, 1978; 황응연, 1977)에서 이다. 그러나 두 논문 모두 북한의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연구주제로 하고 있어, 국내 보육에 관한 논문이라기보다는 국내에서 발표된 외국보육에 대한 분석논문이라 볼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육용어와는 개념적 정의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국내 아동보육에 대한 연구는 1987년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에서 발표한 아동보육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시작으로 1990년까지 한 해에 1개 정도의 논문이 전부였다. 그러나 1991년 이후 양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4년부터는 매년 100편 내외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국내 아동보육 관련논문의 이러한 증가 경향은 아동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논문의 연도별 증가 경향이 1992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점과 2005년을 전후로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는 점은 국내 아동보육 연구의 동향이 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표현인 영유아보육법의 제·개정 및 시행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연도별 분석결과와 주제별 분석결과를 함께 살펴볼 때, 학문적 관심과 사회·정책적 관심의 상관관계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현행 영유아보육법이 2004년과 2005년에 전면 개정·시행되었는데, 국내 아동보육 연구의 동향 역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정책 영역에서 꾸준한 논문발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03년에는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보육현황에 대한 연구가 2006년부터는 정책영역 연구과 더불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보육현황에 대한 연구들이 구체적인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 수행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 국내 보육정책의 개발 및 시행 과정에서 사전·사후연구를 통한 활발한 학문적 뒷받침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보육논문의 주제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보육정책에 관한 논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보육종사자 논문, 보육현황 논문, 보육평가 논문, 보육프로그램 논문의 순으로 10%대의 분포를 보였다. 이 밖에 외국보육 논문, 영양·건강·안전 논문, 보육시설 및 환경 논문, 보육시설 운영관리 논문, 보육개념 논문은 한 자리수의 분포비율을 보임으로써, 국내 아동보육 관련논문이 특정

주제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아동보육 논문들이 보육현황 및 정책 연구에 치중하여 왔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한편으로 우리 사회의 보육에 대한 관심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제적인 정책 및 제도의 개발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황 및 정책관련 연구와 더불어, 국내 보육연구는 보육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보육시설 종사자 및 보육 프로그램 등에 관한 연구를 주로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보육정책이나 보육종사자에 대한 연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과 비교하여 개별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인 현상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보육에 대한 관심이 정책형성 등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세부영역별 주제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보육종사자에 관한 논문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보육교사의 실제적인 직무수행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보육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 보육교사 변인이기 때문에 학문적인 관심 역시 이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보육교사 관련 변인들 중 교사교육이나 교사의 자격과 같은 구조적인 질보다는 보육교사의 민감성, 실제 직무수행과정, 역할인식 등과 같은 과정적인 질이 영유아의 발달에 보다 중요한 영향 요인이라는 선행연구들(전춘애, 이미숙, 2002; Children's Resources International, 2002; Kim, Lee, Machida, & Lee, 2004; Kontos, Howes, Shinn, & Galinsky, 1995)의 결과가 연구주제의 선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보육평가에 관한 논문들을 세부영역별로 재분류하였을 때, 전반적인 질이나 만족도에 관한 논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보육의 전반적인 질에 대한 평가 연구는 그 결과를 토대로 국내 아동보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의 질과 더불어 해당 보육서비스가 영유아의 궁극적인 발달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효과성 검토 역시 매우 중요하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1조에서는 보육의 목적을 “영유아를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하고 더불어 보호자를 지원함으로써 가족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 명시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05). 같은 맥락에서 보육에 관한 연구 역시 그 궁극적인 목적을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 및 가족복지 증진에 맞춰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육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이나 만족도 연구와 더불어 현행 보육서비스가 영유아의 발달과 부모 및 가족구성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셋째, 본 연구는 총 907편의 아동보육관련 논문이 주요 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보육유형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분석대상이었던 보육유형 모두가 6%미만의 매우 낮은 분포비율을 보였다. ‘특수’보육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동안 보육적 관심에서 등한시되어왔던 보육유형의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양적인 분포 역시 그와 같은 경향을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보육욕구가 더욱 다양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다양한 보육유형별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연도별 보육 수요자 통계자료(2005)에 의하면, 유아보육 대상자는 2010년까지 70만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영아보육 대상자는 2004년 20만명에서 2010년 50만명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영아보육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특수보육 유형 중 가장 낮은 빈도분포를 보인 야간 및 24시간보육은 가정의 양육기능이 점차 사회로 이전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요구를 가장 잘 반영한 보육형태라 할 수 있다. 취업모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가족기능이 약화되며 한부모가정과 같이 가정에서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

하기 어려운 가정이 점차 증가할수록 야간 및 24시간보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방과후보육은 영유아보육과 달리 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아동보육의 또 다른 형태이다. 그러나 영유아보육에 비해 그 심각성이 덜하다는 이유로 발표된 논문 수는 아직까지 미비하다. 이 같은 결과는 다양한 보육영역에 대해 균형적인 연구 수행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다음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보육학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아동보육 연구는 2000년대 중반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양적변화와 함께 이제는 연구의 내용적인 면에서 보다 구체화하는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최근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보육관련 연구들은 현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을 개발해서 그 효과를 검증하는 등 보육사업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작업에 치중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그러한 틀 위에서 보육의 내용을 쌓아가는 내실화 작업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보육의 내실화 연구는 보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 아동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아동에게 효과적인 개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행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평가·수정·운영하는 보육프로그램 영역에 대한 연구와 보육의 장기적인 효과까지 파악하는 보육평가 영역에 대한 연구가 더욱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현대사회의 보육욕구는 개인별, 가족별, 지역별, 연령별로 매우 다양하며,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더욱 다양해 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향후 보육관련 연구는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방과후 보육, 야간 및 24시간보육, 직장보육, 가정보육 등과 같이 세분화된 다양한 보육유형과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미래 사회에서는 유아보다는 영아 수의 비율적인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발달연령에 맞는 세분화된 보육 연구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야간 및 24시간보육, 방과후보육, 혹은 부모협동보육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그 대상이나 프로그램의 성격에서 영유아보육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방과후보육에 대한 연구는 아동보육의 독립적인 한 영역으로서 보다 활발하고 구체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향후 아동보육 연구에서는 아동중심의 보육이 더욱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모든 논문들의 연구대상을 분석하지는 않았으나, 기존 아동보육 논문들의 주된 연구주제 영역이 보육정책, 현황, 보육종사자, 보육평가 등이라는 사실은 연구의 대상이 주로 부모, 보육종사자, 정책입안자 등일 가능성을 내포한다. 물론 보육이라는 연구의 대주제 자체가 아동을 제외하고 이해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육연구는 궁극적으로는 아동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아동보육 연구에서는 보다 직접적인 아동중심의 보육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앞서 제시한 보육연구의 내실화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및 평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아동에 대한 보육의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NICHD의 연구(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5)와 같이 보육의 장단기 효과를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는 연구를 통해 아동중심의 보육을 위한 학문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먼저 국내 보육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보육’ 용어를 중심으로 분석대상 논문을 선정함에 따라 ‘보육’ 용어가 아닌 유사용어를 사용한 논문

들이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을 수 있다. 둘째로 주제별 분석에서 다소 분류가 모호한 논문들의 경우 분류자들 간의 논의와 전문가 자문의 과정을 거쳐 분류하였으나 그 정확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 보육논문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첫 시도라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아동보육학 연구의 방향성 정립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공인숙, 한미현, 김영주(2005). **보육학개론**. 교육과학사.
- 권혜진, 이순형(2001). 보육시설의 집단크기에 따른 영아의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 **아동학회지**, 22(4), 201-212.
- 김경희, 김선영, 김신영, 김지은, 김혜금, 문혁준, 서소정, 안선희, 안효진, 이희경, 정선아, 황혜원 (2007). **보육학개론**. 창지사.
- 김익균, 노은호, 박금희, 이미정, 이순영, 이행숙, 이혜숙, 정해은, 조미환, 조혜경(2002). **보육학개론**. 교문사.
- 김혜경, 류왕효(2006). 시간연장 보육아동의 스트레스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45, 207-225.
- 박정혜(2000). 영아보육의 현황과 21세기의 과제: 민간 보육시설 영아 프로그램의 운영과 과제. 2000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79-89.
- 박혜원(2000). 영아보육의 현황과 21세기의 과제: 영아보육시설의 현황과 과제. 2000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5-53.
- 배소정(2004). 영아보육시설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아동교육**, 13(1), 133-146.
- 보건복지가족부(2008). 보육통계. <http://www.mw.go.kr/>
- 신지연, 최석란(2005). 2세 영아의 어머니와 보육교사에 대한 복합 애착과 사회, 정서적 행동. **아동학회지**, 26(1), 137-154.
- 여성가족부(2005). 영유아보육법. <http://www.mogef.go.kr/>
- 유영주, 강학중, 김밀양, 김순기, 김연, 박정희, 배선희, 손정영, 안재희, 양순미, 오윤자, 이인수, 이정연, 이창숙, 전영자, 최희진, 홍성례, 홍숙자(2005). **새로운 가족학**. 도서출판 신정.
- 윤애희, 김은기, 박정민, 곽윤숙, 주영은, 박정문, 정정옥, 임명희, 정지영(2006). **보육 개론과 영유아 보육 프로그램**. 창지사.
- 이대균, 백경순(2007a). 유아교육기관 기관평가 관련 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유아교육학회지**, 11(3), 293-309.
- 이대균, 백경순(2007b). 유아교육분야 질적연구 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2(3), 167-191.
- 이대균, 백경순, 김현수(2006). [열린유아교육연구]의 연구동향 분석: 1996-2005. **열린유아교육연구**, 11(3), 169-188.
- 이문옥, 이지영, 이방식(2006). 유아 언어교육 관련 연구동향 분석: 1996-2005. **유아교육연구**, 26(5),

401-424.

- 전춘애, 이미숙(2002). 보육시설의 구조적, 과정적 변인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1), 115-124.
- 조복희, 강희경, 김연주, 김현지, 손경화, 안은숙, 양연숙, 이영환, 이주연, 이진숙, 장혜자, 한유미 (2007). **보육학개론**. 교육과학사.
- 조성연, 이정희, 김은기, 황혜정, 나유미, 박진재, 송혜린, 임연진, 나중혜, 권연희(2005). **영유아보육론**. 학지사.
- 조윤경(2007). 보육교사의 관찰과 평정을 통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증후 아동의 선별 및 하위 위형조사. **한국영유아보육학**, **50**, 275-295.
- 조혜경, 이순영, 황성원, 노은호, 구경선, 곽혜경, 박금희, 조미환, 나은숙, 문영보(2006). **보육학개론**. 창지사.
- 조희숙(1998). 아동발달에 관한 연구 동향. 중앙유아교육학회 제5회 유아교육학술대회 발표자료. 51-78.
- 통계청(2008). 국가통계포털. <http://www.nso.go.kr>
- 한국유아교육학회(2003). **유아교육백서**(1995-2000년). 양서원.
- Children's Resources International(2002). *Creating child-centered programs for infants and toddlers*. Washington, DC: Children's Resources International.
- Cowan, C. P., & Cowan, P. A.(2003). Becoming a parent. In A. S. Skolnick, & J. H. Skolnick(Eds.), *Family in transition*(pp. 218-230). Boston, MA: Allyn and Bacon.
- Kim, J. H., Lee, G. S., Machida, S., & Lee, Y. S.(2004). A meta-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care quality and children's development.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1*(4), 423-447.
- Kontos, S., Howes, C., Shinn, M., & Galinsky, E.(1995). *Quality in family child care and relative care*. N.Y.: Teachers College Press.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2005). *Child care and child development: Results from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and youth development*. NY: Guilford Press.